

꽃비 내리는 환상벚꽃 만끽

무주군, 설천면 뒷작금 벚꽃축제·소이나루 벚꽃축제 등 열려

지난 주말 무주군에는 벚꽃엔딩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특히 설천면과 무주읍 주민들이 마련한 벚꽃 축제에는 5천여 명이 찾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속에서 꽃이 지는 아쉬움을 달랬다.



무주 설천면 뒷작금 벚꽃길.

제4회 설천면 뒷작금 벚꽃축제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설천면 상평지 사냥보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설천면 의식업협회(회장 서숙자)가 주관한 가운데 '꽃길 위에 펼쳐진 먹거리장터'라는 콘셉트로 인기를 끌었다. 방문객들은 벚꽃 잎이 흩날리는 길(설천면 소재지~소천제방교 1.3km)에서 마을 주민들의 손맛이 담긴 파전과 가래떡구이, 진치국수, 아재순대 등을 맛보며 꽃놀이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반딧불이예술탄 회원들이 사물놀이와 색소폰, 노래, 춤 등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가 열렸다. 서면새마을회(대표 신기상)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다채로운 공연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무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명창 임홍자', '안해웅 음악여행 빅밴드', '빛두드림 난타', '오늘같이 좋은 날 통기타' 연주와 함께 설천면 출신 가수 정지운 씨 등 지역가수 공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무주읍 서면새마을회에서는 행사 장소마다 주민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을 배치하고 무주군청과 보건 의료원, 경찰서, 119안전센터 등지와도

협조해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무주읍에서는 무주반딧불이예술탄에서 소이나루 벚꽃축제가 열린 무주읍 대차리차산마을에서 서면마을까지 약 5km구간을 비롯해 주계로와 단천로, 한공루, 금강변마실길이 지나는 잡두마을 옛길 일대가 벚꽃 장관을 이뤘으며 적상면 행정복지센터 뒤편 천변길 1km구간, 부남면 상굴암마을 도로변에 핀 벚꽃도 남다른 자태를 자랑하며 주말 관광객들을 손질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업회사법인 늘푸른 제2공장 준공식 가져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준공

알가공업식품 전문가기업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늘푸른(대표 김정화)은 지난 7일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에서 본격적인 기동을 위해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진춘성 군수, 김민규 군의장, 진

용태 도의원 등 관내 주요 인사 및 관내 기업 대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늘푸른은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에서 본사를 두고 제1공장에 이어 제2공장을 50여억원을 투자해 2021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 2022년 말 제2공장을 설립했다.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통해 현재 연 매출 100억원을 달성하고 있으며 다양

한 생산 장비들을 도입하여 고품질의 소비자 니즈에 맞는 구운계란을 생산하고자 본 투자를 진행했다.

이번에 준공된 늘푸른 제2공장은 다년간의 노하우로 다이어트 식품 및 간식인 구운계란을 전문적으로 고도화하여 생산하는 업체로서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율오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추진

무주군이 율오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무풍면 율평·오동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율평마을과 오동마을을 잇는 율오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를 이달 말께 사업에 착수해 오는 2024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율오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는 총연장 1.407m, 폭 8m(2차로) 율평마을과

오동 마을을 잇는 진입도로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의 농어촌도로 신설을 통해 마을 주민과 도로 이용자들에게 편의 제공 및 안정성 확보가 기대된다.

무주군 건설과 권태영 과장은 "율오선 농어촌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율오 마을 진입도로가 확장, 선형이 개선되면서 교통사고 예방과 접근성 개선으로 주민 불편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 총력

무주군이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봄철 농작물에 대한 저온피해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4월 초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한 과수나무 저온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사전예방에 주력하는 취지에서다.

이에 군은 오는 21일까지 6개조 19명으로 긴급 저온피해 대책반을 꾸리고 사과, 복숭아, 포도 과수와 인삼, 채소 작목을 대상으로 현장기술 지원과 지도에 나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은 지난 7일 DH그룹(회장 서동해) (좌)호진, 나블리조트(주)와 장수군 복합레저스포츠 단지 조성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복합레저스포츠 단지 조성 박차

장수군, DH그룹 호진·나블리조트와 투자협약 체결

장수군(군수 최훈식)이 장수군 천천면 일원에 복합레저스포츠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견결음에 나섰다.

군은 지난 7일 DH그룹(회장 서동해) (주)호진, 나블리조트(주)와 장수군 복합레저스포츠 단지 조성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복합레저스포츠 단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 DH그룹 서동해 회장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수읍마장 및 포니랜드 운영, 관광 휴양시설 정비, 골프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주)호진과 나블리조트(주)는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약 82만㎡ 부지에, 총 700억 원을 투자해 복합레저스포츠 단지를 조성해 가족과 함께 즐기는 건

강·레저·휴양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장수군에 약 6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동해 회장은 "장수군의 차별화된 스포츠 인프라와 장수군의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에 힘입어 이번 복합레저스포츠 단지 조성에 투자하게 됐다"며 "장수군과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에 투자를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며 "(주)호진과 나블리조트(주)가 장수군에서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략작물직불제 동계작물 이행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주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주사무소(소장 황석표, 이하 무주농관원)가 10일부터 전략작물직불 신청(등록)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직불금 준수 상황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런 점검은 2023년 전략작물직불금 전체 신청농지를 대상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 조사와 더불어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방침이다.

농유지 여부와 6월 말 이전까지 식량작물 및 사료작물 수확 가능한 대상 품목 재배 여부 등이며,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휴경 등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내

용을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직불금을 감액한다.

황석표 사무소장은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품목이 확대되고, 이모작의 경우 원래 단가보다 추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들이 지급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직불금 지원요건은 쌀고정·발고정 직불대상 농지 또는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논(현재)으로, 지급액은 동계 50만원/ha, 하계 콩·가루쌀 100만원/ha, 하계조사료 430만원/ha, 이모작 동계 밀·조사료 + 하계 콩·가루쌀 250만원/ha를 지원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희망나눔캠페인 우수지자체 선정

진안군은 '희망2023나눔캠페인'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7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진안군청에서 진행된 표창패 전달식은 전춘성 군수, 유병실 전북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지자체 표창 시상식 진행됐다.

전북공동모금회 자료에 따르면 진안군 희망2023나눔캠페인 모금액 1억3500만원 중 일반성금이 7500만원(55%)로 비율이 높은 편으로 14개 시군 중 3위를 달성했다.

군은 이웃돕기 우수지자체 상급으로 받은 2,000만원으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현안 사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소방서,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건조하고 많은 바람이 부는 봄철에 따라 건축 등 공사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를 주의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해 작업할 것을 지난 7일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화재 중 불꽃·불티로 인한 화재는 3,247건으로 전체 화재의 30.7%를 차지해 98명의 인명피해와 139억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중에서도 용접·절단·연마로 인한 화재는 159건으로 다른 요인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공사장 등의 환경적 특성상 46%이 넘는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봄철에는 날씨가 건조할 뿐더러 바람도 많이 불어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수천개의 불티가 바람을 타고 먼 거리에 있는 가연물에 불을 위험성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용접 작업 전 작업장 주변 환기 및 가연물 적치 금지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작업장 주변 방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불티 비산 방지 조치 실시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등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